

##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국어 어휘력 비교 연구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 옥 현

생초고등학교 교사

### 《요 약》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 중·고등학생의 국어 어휘의 요인별 즉, 동의어, 반의어, 하위어, 유의어 이해력과 정답률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어휘력 차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시각장애학생의 국어 어휘 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시각장애학생 120명과 정안학생 191명, 총 311명으로 전국에 소재한 시각장애학교와 서부 경남에 소재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요인별 국어 어휘력의 비교에서는 정안학생들이 시각장애학생보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어휘력이 높았으나, 전체적인 비교에서 정안 중학생과 시각장애 고등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어휘력의 요인별 정답률 비교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정안학생이 시각장애학생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하위어 '시대에 따른 소설' 문항과, 유의어 '춘부장'과 '셋별' 문항의 정답률은 시각장애학생의 정답률이 약간 높았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변인별 어휘력 비교에서는 맹학생보다는 저시력 학생이, 기숙사보다는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선천성보다는 후천성 학생의 어휘력이 다소 높았으나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제어 : 시각장애, 어휘력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시각장애학생의 어휘 습득은 정안학생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 본 연구자가 몇몇의 시각장애학생을 관찰해 본 결과 맹학생들은 점자로 된 도서를 읽고, 저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시력 학생들은 확대된 문자의 도서를 읽거나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읽는다. 그리고 시각장애아동의 읽기 능력을 연구한 김은희 등(1997)의 보고에 따르면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읽기 속도 비교에서 정안학생이 시각장애학생보다 약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읽는다.

김현애(2004)는 시각장애아동 중 독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 정도 선으로 보고하고 있다. 시각장애학생의 일반적인 독서 저해 요소로는 TV, 컴퓨터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점자나 녹음도서들 중엔 입을 만한 책이 없고, 주변에 도서관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이용이 불편하고, 적절한 독서자료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학과 공부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등의 요인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아동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는 등 불규칙적인 독서습관을 지니고 있다. 한편 독서 후 처리 태도를 살펴보면 단지 책을 읽은 것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독서 후 글을 쓰거나 독서그룹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맹학교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어 수업을 일반학교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교과 과정인 고등학교 2, 3학년 이료반 학생들은 주당 국어 수업이 없거나 1시간만을 실시하고 있어 국어 어휘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2003)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학생의 인지 능력은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기들과 일반교사의 교육적 배려가 있으면 통합교육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한다. 시각 자극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통한 운동발달과 인지발달의 촉진이 요구되며 또한 시각장애의 특성과 보유시력을 고려한 좌석배치, 색채, 음향, 실내조명 등과 같은 학습 환경을 조정하고, 학습내용이나 교수 방법의 수정, 점자 및 묵자교육, 다양한 보조공학적 도구 등을 선택하여 각 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학생은 정안학생에 비해 인지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어휘 습득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국어 어휘력 실태를 밝혀 국어 어휘 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 중·고등학생의 국어 어휘의 요인별 즉, 동의어, 반의어, 하위어, 유의어 이해력과 정답률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어휘력 차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시각장애학생의 국어 어휘 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의 국어 어휘력의 차이를 밝힌다.

둘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의 국어 어휘에 대한 정답률 차이를 밝힌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정도, 거주 형태,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국어 어휘력의 차이를 밝힌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시각장애학생 120명과 정안학생 191명, 총 311명으로 전국에 소재한 시각장애학교와 서부 경남에 소재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다. 초·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국어 어휘의 관계는 중학교 국어에서부터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을 학교급별, 장애유무, 주거지역과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정도, 거주형태, 시각장애 발생시기에 따라 제시하면 표 2.1, 표 2.2와 같다.

이해균(2006)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맹과 저시력의 분류에서 맹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학생을 포함했으며, 저시력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미만인 학생으로서 점자로 학습하더라도 시력을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까지를 포함했다.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선천성, 후천성 분류에서 5세 이전의 시각장애를 선천성, 5세 이후의 시각장애를 후천성으로 간주했다.

<표 2.1> 전체 연구 대상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학교급별	중학교	146	46.9
	고등학교	165	53.1
	전체	311	100
장애유무	정안학생	191	61.4
	시각장애학생	120	38.6
	전체	311	100
주거지역	도시	177	56.9
	농촌	134	43.1
	전체	311	100

<표 2.2> 시각장애 학생 연구 대상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시각장애 정도	맹	50	41.7
	저시력	70	58.3
	전체	120	100
거주형태	자택	53	44.2
	기숙사	67	55.8
	전체	120	100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60	50
	후천성	60	50
	전체	120	100

## 2. 조사 도구

### 1) 배경 조사지

학생의 학교급별, 장애유무, 주거지역과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정도, 거주형태,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자로, 정안학생에게는 목자로 제시했다.

### 2) 국어 어휘 능력 조사

국어 어휘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김선경(2001), 노대섭(2001)이 사용한 설문을 참고로 하여,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관계 부분 중에서 평소 학생들이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국어의 방대한 어휘 중에서 ‘동의어에 관한 것’, ‘반의어에 관한 것’, ‘하위어에 관한 것’, ‘유의어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는데 요인별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설문지의 구성 요인과 문항

요인별	문항	문항수
동의어	1-8	8
반의어	9-16	8
하위어	17-24	8
유의어	25-32	8
합 계	32	32

###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06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시각장애학교에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해 양해와 함께 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확인하고, 일반학교에도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해 양해를 구한 뒤 협조문과 설문지의뢰 서신을 설문지에 첨부하여 반송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시각장애학교에 배부된 설문지는 맹학생에게는 짐역하여, 저시력 학생에게는 20포인트로 확대하여 제공하였다.

배부한 부수는 시각장애학교에 150부, 일반학교에 200부를 배포하였다. 시각장애학교에서는 회수율 80%인 120부를 회수하였고, 일반학교에서는 회수율 96%인 191부를 회수하였다.

### 4. 자료 처리

모든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국어 어휘력 비교를 위해서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국어 어휘력의 요인별 정답률 비교를 위해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시각장애학생의 변인별 어휘력 비교에서는 독립 t 검정을 이용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국어 어휘력 비교

#### 1) 전체적인 어휘력 비교

##### (1) 학교급별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어휘력을 학교급별에 따라 살펴보면 표 3.1와 같다.

표 3.1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에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학교급별 전체적인 어휘력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661.623	1	661.623	30.150***	.000
학교급별	1017.467	1	1017.467	46.366***	.000
장애×학교급별	138.589	1	138.589	6.316*	.012
오차	6736.874	307	21.944		
전체	8306.714	310			

\* p<.05 \*\*\* p<.001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표 3.2과 같다.

<표 3.2> 전체 어휘력에 대한 장애유무 학생과 학교급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학교급별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중학교	94	21.78	4.49	b	23.846***	.000
	고등학교	97	24.13	4.06	c		
시각장애학생	중학교	52	17.38	5.28	a		
	고등학교	68	22.50	5.26	b		
전체		311	21.94	5.18			

a, b, c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01

표 3.2에 의하면,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안 중학생과 시각장애 고등학생 간에는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어휘력에 대해서 시각장애 고등학생의 경우는 정안 중학생 수준의 어휘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각장애학생이 정안학생에 비해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은 시각의 결손으로 말미암아 잔존 감각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입수한 정보의 양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차항미(2002)의 보고와 일치한다. 그리고 국어 어휘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많은데 Zweinbelson과 Barg(196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학생은 추상적인 사고에서 정안학생보다 열등하였다.

**(2) 주거지역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어휘력을 주거지역 따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주거지역별 전체 어휘력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429.995	1	429.995	17.905***	.000
주거지역	359.940	1	359.940	14.988***	.000
장애×거주형태별	5.387	1	5.387	.224	.636
오차	7372.784	307	24.016		
전체	8306.714	310			

\*\*\* p<.001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전체 어휘력에 대한 장애유무 학생과 주거지역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주거지역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도시	116	23.96	3.89	b	12.963***	.000
	농촌	75	21.45	4.79	ab		
시각장애학생	도시	61	21.25	5.17	ab		
	농촌	59	19.29	6.34	a		
전체		311	21.94	5.18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01

표 3.4에 의하면, 다소 정안학생들의 이해력이 높았으나 도시 주거 정안학생과 농촌 주거 시각장애학생 간의 이해력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명숙(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독서량의 차이, 한자 학습의 차이, 어휘 환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답률이 높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서는 언제나 도시와 농촌의 어휘력 격차가 매우 커진다. 특히 한자어나 전문어처럼 어려운 단어의 어휘력이 도시 학생들에 비해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동의어 이해력 비교

### (1) 학교급별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동의어 이해력을 학교급별에 따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학교급별 동의어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5.650	1	5.650	5.244*	.023
학교급별	40.855	1	40.855	37.916***	.000
장애×학교급별	11.303	1	11.303	10.490*	.001
오차	330.796	307	1.078		
전체	378.373	310			

\* p<.05 \*\*\* p<.001

표 3.5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에는 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표 3.6와 같다.

<표 3.6> 장애유무 학생과 학교급별 학생의 동의어 이해력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학교급별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중학교	94	5.19	.93	b	14.718***	.000
	고등학교	97	5.55	.74	c		
시각장애학생	중학교	52	4.52	1.53	a		
	고등학교	68	5.66	1.09	c		
전체		311	5.29	1.10			

a, b, c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01

표 3.6에 의하면,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안 고등학생과 시각장애 고등학생 간에는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시각장애학생의 동의어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 내용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이어서 시각장애 중학생은 잔존 감각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가 고등학생에 비해 덜 일반화되었음을 알려 준다. 특히 중학생에게 구체어가 아닌 한자어나 고유어에 대한 동의어 지식을 평가한 것이 더욱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2) 주거지역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동의어 이해력을 주거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표 3.7>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주거지역별 동의어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2.281	1	2.281	1.950	.164
주거지역	15.731	1	15.731	13.444***	.000
장애×거주형태별	1.890	1	1.890	1.615	.205
오차	359.218	307	1.170		
전체	378.373	310			

\*\*\* p<.001

표 3.7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의 경우에 장애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거지역에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주거지역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동의어에 대한 이해는 장애에 따라서는 무관하며 단지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동의어 이해력에 대한 장애유무 학생과 주거지역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주거지역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도시	116	5.49	.74	b	5.457**	.001
	농촌	75	5.19	.98	ab		
시각장애학생	도시	61	5.48	1.23	b		
	농촌	59	4.85	1.52	a		
전체		311	5.29	1.10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1

표 3.8에 의하면, 도시학생의 동의어에 대한 이해력이 더욱 높으며 농촌학생의 이해력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안학생의 경우는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해력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시각장애학생만이 주거지역에 따른 동의어 이해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이나 정안학생 모두 농촌에 주거하는 학생이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생성되고 존재하는 동의어 이해의 어휘 환경이 도시 학생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최명숙(2004)의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어휘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동의어 어휘 능력이 도시 학생이 50.7%의 정답률을, 농촌 지역 학생이 42.3%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동의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강명희(2001)가 제시한 ‘의미 지도 그리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어휘 학습과제와 관련된 단어를 고르게 한다. 둘째, 커다란 종이나 칠판 가운데 그 단어를 적게 한다. 셋째, 선택된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하도록 하고 한 장의 종이 위에 범주별로 분류하여 단어들을 적게 한다. 넷째, 학생들은 준비한 항목들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 모든 단어들을 범주별로 나누어 칠판에 적는다. 다섯째, 분류된 범주에 대해 토의하게 하고, 동의어를 더 생각해 적어 보게 하며, 문장으로 만들어 보게 한다.

### 3)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반의어 이해력 비교

#### (1) 학교급별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반의어 이해력을 학교급별로 알아보면 표 3.9와 같다.

<표 3.9>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학교급별 반의어의 일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86.910	1	86.910	29.875***	.000
학교급별	91.246	1	91.246	31.365***	.000
장애×학교급별	19.467	1	19.467	6.691*	.010
오차	893.119	307	2.909		
전체	1061.164	310			

\* p<.05 \*\*\* p<.001

표 3.9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에는 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장애유무 학생과 학교급별 학생의 반의어 이해력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학교급별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중학교	94	6.53	1.727	b	19.255***	.000
	고등학교	97	7.13	1.532	c		
시각장애학생	중학교	52	4.92	1.713	a		
	고등학교	68	6.56	1.896	b		
전체		311	6.46	1.850			

a, b, c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01

표 3.10에 의하면,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을 통

하여 살펴본 결과,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안 중학생과 시각장애 고등학생 간에는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정안 중학생과 시각장애 고등학생 간의 반의어에 대한 이해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의어에 대해서는 시각장애 고등학생 수준은 정안 중학생의 수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문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 중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많았는데, 시각장애학생에게는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등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가능한 실물을 매개로 하는 언어 지도가 필요하다는 차향미(2002)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2) 주거지역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반의어 이해력을 주거지역별로 알아보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주거지역별 반의어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57.211	1	57.211	18.562***	.000
주거지역	28.045	1	28.045	9.099**	.003
장애×거주형태별	7.295	1	7.295	2.367	.125
오차	946.210	307	3.082		
전체	1061.164	310			

\*\* p<.01 \*\*\* p<.001

표 3.11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유무와 주거지역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반의어 이해력에 대한 장애유무 학생과 주거지역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주거지역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도시	116	7.21	1.42	b	12.432***	.000
	농촌	75	6.27	1.83	a		
시각장애학생	도시	61	6.00	1.89	a		
	농촌	59	5.69	2.09	a		
전체		311	6.46	1.85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01

표 3.12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의 어휘력이 정안학생보다 낮았으며 도시 주거 정안 학생의 어휘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시각장애학생의 주거지역에 따른 어휘력의 차이는 없으나 도시 지역 정안학생은 반의어에 대한 어휘력이 더욱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이나 정안학생 모두 농촌에 주거하는 학생이 반의어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자어나 추상적인 단어의 이해에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최명숙(2004)의 도시 학생과 농촌 학생의 어휘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반의어를 묻는 문항에서는 도시의 학생이 30.6%의 정답률을, 농촌의 학생이 4.5%를 보여 그 차이가 매우 컸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반의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영자(1984)가 제안한 ‘문장 만들기’가 있다. 이는 첫째, 두 사물을 비교하거나 대조시켜 그 뜻을 추측하게 한다. 둘째, 동일개념으로 묶이되 의미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를 대치해 봄으로써 유의어에 대한 언어 감각이 예민해지고,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다. 이 때 학생들이 이미 전에 학습해서 익숙해져 있는 문학 작품의 일부분을 나누어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치 문장을 이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다.

#### 4)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하위어 이해력 비교

##### (1) 학교급별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하위어 이해력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학교급별 하위어의 일원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68.818	1	68.818	15.518***	.000
학교급별	59.372	1	59.372	13.388***	.000
장애×학교급별	3.924	1	3.924	.885	.348
오차	1361.473	307	4.435		
전체	1480.746	310			

\*\*\* p<.001

표 3.13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학교급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3.14와 같다.

<표 3.14> 장애유무 학생과 학교급별 학생의 하위어 이해력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학교급별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중학교	94	5.32	2.11	bc	8.965***	.000
	고등학교	97	5.99	2.11	c		
시각장애학생	중학교	52	4.12	1.98	a		
	고등학교	68	5.25	2.19	b		
전체		311	5.31	2.19			

a, b, c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01

표 3.14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교적 정안학생들의 어휘력이 높으며 시각장애학생의 어휘력이 낮은 경향이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어휘력이 높았다.

하위어에 대한 정답률이 정안학생이나 시각장애학생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단어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상하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다른 어휘보다는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은 도식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상하관계를 시각적으로 경험하여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설문에 제시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답을 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거지역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하위어 이해력을 주거지역별로 알아보면 표 3.15와 같다.

<표 3.15>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주거지역별 하위어의 일원변량 분석

변광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46.162	1	46.162	10.374*	.001
주거지역	43.818	1	43.818	9.847*	.002
장애×거주형태별	3.504	1	3.504	.787	.376
오차	1366.123	307	4.450		
전체	1480.746	310			

\* p<.05

표 3.15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주거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주거지역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lt;표 3.16&gt; 하위어 이해력에 대한 장애유무 학생과 주거지역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주거지역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도시	116	6.05	2.12	b	8.586***	.000
	농촌	75	5.05	2.02	a		
시각장애학생	도시	61	5.03	2.15	a		
	농촌	59	4.47	2.16	a		
전 체		311	5.31	2.19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lpha < .05$ ), \*\*\*  $p < .001$

표 3.16에 의하면, 정안학생의 경우는 도시학생과 농촌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시각장애학생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시각장애학생이 다소 낮은 어휘력 수준을 가졌으며 정안학생의 어휘력이 다소 높았으나 농촌지역의 정안학생은 다소 시각장애학생의 어휘력수준과 다소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명숙(2004)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특정 문항에서는 농촌 학생의 정답률이 도시 학생보다 미미하게나마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사회 문화적 친숙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상위어에 대한 하위어로 단어의 범주를 구분 짓는 능력에 있어 농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어휘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하위어 이해력이 다른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하겠다.

하위어 교육의 방법으로는 각 단계별로 어휘를 확장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친족명의 경우 초급에서 제시할 어휘와 중급, 고급에서 제시할 어휘를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위어를 교체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유의어나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문장 단위가 아닌 대화전환에서 상위어, 하위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생들이 의사소통 시 생각이 나지 않는 어휘를 찾아낼 때, 목표어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5)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유의어 이해력 비교

### (1) 학교급별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하위어 이해력을 학교급별로 알아보면 표 3.17과 같다.

<표 3.17>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학교급별 유의어의 일원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32.796	1	32.796	13.948***	.000
학교급별	68.035	1	68.035	28.935***	.000
장애×학교급별	4.070	1	4.070	1.731	.189
오차	721.858	307	2.351		
전체	816.109	310			

\*\*\* p<.001

표 3.17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와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와 학교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학교급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3.18과 같다.

<표 3.18> 장애유무 학생과 학교급별 학생의 유의어 이해력 상호작용 효과분석

장애유무별	학교급별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중학교	94	4.73	1.50	b	13.361***	.000
	고등학교	97	5.46	1.48	c		
시각장애학생	중학교	52	3.83	1.35	a		
	고등학교	68	5.03	1.77	bc		
전체		311	4.87	1.62			

a, b, c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01

표 3.18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시각장애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어휘력이 높으며, 시각장애 고등학생이 정안 중학생보다는 어휘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장애학생, 정안학생 모두 친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호칭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자어에 대해서도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사투리에 대해서 타 시도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주거지역에 따른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유의어 이해력을 주거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3.19와 같다.

<표 3.19>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주거지역별 유의어의 이원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장애유무	23.695	1	23.695	9.323**	.002
주거지역	9.551	1	9.551	3.758	.053
장애×거주형태별	.770	1	.770	.303	.583
오차	780.285	307	2.542		
전체	816.109	310			

\*\* p<.01

표 3.19에 의하면, 주효과인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주거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애유무와 주거지역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와 주거지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0과 같다.

<표 3.20> 유의어 이해력에 대한 장애유무 학생과 주거지역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장애유무별	주거지역	N	M	SD	Duncan	F	p
정안학생	도시	116	5.21	1.35	b	4.698**	.003
	농촌	75	4.95	1.76	b		
시각장애학생	도시	61	4.74	1.64	ab		
	농촌	59	4.27	1.75	a		
전체		311	4.87	1.62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1

표 3.20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의 농촌주거인 경우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정안학생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각장애학생의 농촌주거인과 정안학생의 도시, 농촌주거인 간에는 상당히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이 시각장애로 인하여 어휘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환경적인 제한 및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어휘 이해에 장애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유의어 지도는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단어를 하나의 공통된 영역 안으로 묶는 상위 개념을 산출해 내고 또 두 단어를 변별하는 개별적 의미를 추출해냄으로써 두 단어의 의미를 비교해야 한다. 또 문맥상 치환이 가능하나 개념의미만 동일한 경우

와 제한된 문맥에서 개념의미, 연상의미, 주제의미가 동일하고 치환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 2.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어휘력의 요인별 정답률 비교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국어 어휘력 정답률 비교는 설문지의 내용을 요인별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1번 문항에서 8번 문항까지인 동의어에 관한 것, 9번 문항에서 16번 문항까지인 반의어에 관한 것, 17번 문항에서 25번 문항까지인 하위어에 관한 것, 26번 문항에서 32번 문항까지인 유의어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 1) 동의어 정답률 비교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같거나 동일한 의미를 지녔을 때 그들은 동의관계에 있다고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을 동의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표 3.21과 같다.

<표 3.21>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동의어 정답률 비교 (%)

문항	단어	정안학생 (n=191)	시각장애 (n=120)	Total (N=311)	$\chi^2$	P
1	제법	186(97.4)	99(82.5)	285(91.6)	21.305***	.000
2	반지	184(96.3)	107(89.2)	291(93.6)	6.294*	.012
3	샷	1(0.5)	1(0.8)	2(0.6)	.111	.739
4	뒷간	158(82.7)	100(83.3)	258(83.0)	.019	.889
5	충양돌기	98(51.3)	71(59.2)	169(54.3)	1.834	.176
6	연인	191(100)	109(90.8)	300(96.5)	18.150***	.000
7	불법	181(94.8)	104(86.7)	285(91.6)	6.308*	.012
8	털어놓다	27(14.1)	29(24.2)	56(18.0)	5.022*	.025

\* p<.05 \*\*\* p<.001

표 3.21에 의하면, 동의어에 대한 8개의 문항 중 ‘샷’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거의 1%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외 문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으며 ‘제법’, ‘반지’, ‘연인’, ‘불법’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0.1%, 5% 수준에서 더욱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의 동의어에 대한 정답률은 ‘제법’, ‘반지’, ‘연인’, ‘불법’, ‘털어놓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안학생의 정답률이 높으며 시각장애학생들의 어휘력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유어에 대해서 시각장애학생이나 정안학생 모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이지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어휘에 대

해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는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사라져 가는 고유어에 대해 학생들에게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찾아보게 하고 주의를 기울여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겠다.

## 2) 반의어 정답률 비교

단어들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거나 또는 짝을 이루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반의관계라 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반의어(反義語)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표 3.22와 같다.

<표 3.22>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반의어 정답률 비교 (%)

문항	단어	정안학생 (n=191)	시각장애 (n=120)	Total (N=311)	$\chi^2$	P
9	깊다	167(87.4)	90(75.0)	257(82.6)	7.942**	.005
10	맞다	182(95.3)	105(87.5)	287(92.3)	6.277*	.012
11	여리다	168(88.0)	89(74.2)	257(82.6)	9.769**	.002
12	영리하다	136(71.2)	74(61.7)	210(67.5)	3.057	.080
13	수치스럽다	156(81.7)	82(68.3)	238(76.5)	7.303**	.007
14	익다	162(84.8)	97(80.8)	259(83.3)	.840	.359
15	향상되다	176(92.1)	87(72.5)	263(84.6)	21.795***	.000
16	미색	159(83.2)	78(65.0)	237(76.2)	13.531***	.000

\* p<.05 \*\* p<.01 \*\*\* p<.001

표 3.22에 의하면, 모든 8개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맞다’에 대한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가장 높으며 ‘영리하다’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간의 반의어의 정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리하다’와 ‘익다’에 대해서는 정답률의 차이가 없으나 특히 ‘향상되다’에 대한 정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가장 컸다. 다음으로 ‘미색’, ‘여리다’, ‘깊다’, ‘수치스럽다’, ‘맞다’에 대한 정답률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안 학생들의 정답률이 매우 높았다. 즉, ‘영리하다’는 의미와 ‘익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안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이 정안학생보다 추상적인 어휘의 이해력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시각장애학생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이 정안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교사는 시각장애학생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가능한 한 실물을 매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하위어 정답률 비교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단어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한 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섭하거나 다른 쪽에 포섭되는 관계라고 정의하는 경우, 다른 쪽에 포섭되는 쪽을 하위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표 3.23과 같다.

표 3.23에 의하면, 모든 8개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인종’에 대한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가장 높으며 ‘형태에 따른 시’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민물고기’, ‘문학’, ‘형태에 따른 시’, ‘시대에 따른 소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답률의 차이가 없으나 ‘취학 연령별 학교’, ‘정기별 잡지’, ‘자동차 크기’, ‘인종’에 대한 정답률은 정안학생의 정답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민물고기’, ‘문학’, ‘형태에 따른 시’, ‘시대에 따른 소설’에 대해서는 정안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의 정답률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23>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하위어 정답률 비교 (%)

문항	단어	정안학생 (n=191)	시각장애 (n=120)	Total (N=311)	$\chi^2$	P
17	취학 연령별 비교	129(67.5)	55(45.8)	184(59.2)	14.372***	.000
18	정기별 잡지	150(78.5)	80(66.7)	230(74.0)	5.389*	(.020)
19	자동차 크기	129(67.5)	61(50.8)	190(61.1)	8.653**	.003
20	민물고기	148(77.5)	81(67.5)	229(73.6)	3.786	.052
21	인종	161(84.3)	86(71.7)	247(79.4)	7.189**	.007
22	문학	144(75.4)	80(66.7)	224(72.0)	2.785	.095
23	형태에 따른 시	82(42.9)	39(32.5)	121(38.9)	3.374	.066
24	시대에 따른 소설	138(72.3)	89(74.2)	227(73.0)	.137	.711

\* p<.05 \*\* p<.01 \*\*\*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인종’과 같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시각장애 학생이나 정안학생 모두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형태에 따른 시’와 같은 설문에 대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답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어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교사는 단어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사고하게 한다. 그리고 분류된 범주에 대해 토의하게 하여 상위어와 하위어를 교체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연습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단어들의 계층적 포함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4) 유의어 정답률 비교

둘 이상의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면서 그 용법이나 쓰이는 문맥적 환경이 다른 어휘

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표 3.24와 같다.

표 3.24에 의하면, 모든 8개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모눈종이’에 대한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가장 높으며 ‘춘부장’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노파’, ‘골오르다’, ‘셋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답률의 차이가 없으나 ‘춘부장’, ‘자친’, ‘개줍치’, ‘모눈종이’, ‘궁핍하다’에 대한 정답률은 정안학생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노파’, ‘골오르다’, ‘셋별’에 대해서는 정안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의 정답률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24>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유의어 정답률 비교 (%)

문항	단어	정안학생 (n=191)	시각장애 (n=120)	Total (N=311)	$\chi^2$	P
25	춘부장	55(28.8)	49(40.8)	104(33.4)	4.798*	.028
26	자친	123(64.4)	54(45.0)	177(56.9)	11.309**	.001
27	노파	125(65.4)	67(55.8)	192(61.7)	2.882	.090
28	골오르다	161(84.3)	92(76.6)	253(81.4)	2.825	.093
29	개줍치	91(47.6)	42(35.0)	133(42.8)	4.814*	.028
30	셋별	118(61.8)	77(64.2)	195(62.7)	.179	.672
31	모눈종이	173(90.6)	97(80.8)	270(86.8)	6.112*	.013
32	궁핍하다	129(67.5)	63(52.5)	192(61.7)	7.056**	.008

\* p<.05 \*\* p<.01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이나 정안학생 모두 ‘춘부장’과 ‘자친’ 같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호칭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줍치’ 같은 특정 지역의 사투리에 대해서도 타 지역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유의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다른 어휘로 바꿔보는 방법인 교체 검증, 대립어로 그 차이를 알아보는 대립 검증, 유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어휘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해 보는 배열 검증의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3. 시각장애학생의 변인별 어휘력 비교

시각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의 변인에 따라 동의어와 반의어, 하위어, 유의어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변인에 따른 어휘력의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의를 하였다.

1) 변인에 따른 어휘력 비교

(1) 동의어 이해력 비교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동의어 이해력 비교는 표 3.25와 같다.

표 4.28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인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의 동의어 이해력은, 맹학생의 평균은 4.84, 저시력 학생의 평균은 5.40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거주형태 따른 동의어 이해력은, 자택 학생은 평균 5.38, 기숙사 학생은 평균 5.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각장애 발생시기인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른 동의어 이해력은,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선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5.02, 후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5.32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25> 시각장애학생의 동의어 이해력 비교

변인	구분	N	M	SD	t	p
시각장애 정도	맹	50	4.84	1.79	1.997	.050
	저시력	70	5.40	1.01		
거주형태	자택	53	5.38	1.08	1.463	.146
	기숙사	67	5.00	1.61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60	5.02	1.62	-1.167	.246
	후천성	60	5.32	1.16		

(2) 반의어 이해력 비교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반의어 이해력 비교는 표 3.26과 같다.

<표 3.26> 시각장애학생의 반의어 이해력 비교

변인	구분	N	M	SD	t	p
시각장애 정도	맹	50	5.40	2.19	2.129*	.035
	저시력	70	6.17	1.77		
거주형태	자택	177	6.79	1.69	3.665***	.000
	기숙사	134	6.01	1.96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60	5.38	2.21	-2.638*	.010
	후천성	60	6.32	1.62		

\* p<.05 \*\*\* p<.001

표 3.26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인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의 반의어 이해력은, 맹학생의 평균은 5.40, 저시력 학생의 평균은 6.17로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저시력 학생의 이해 정도가 맹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반의어 이해력은, 자택 학생은 평균 6.79, 기숙사 학생은 평균 6.01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자택 학생의 이해 정도가 기숙사 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발생시기인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른 반의어 이해력은,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선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5.38, 후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6.3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후천적인 학생의 이해 정도가 선천적인 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3) 하위어 이해력 비교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하위어 이해력 비교는 표 3.27과 같다.

<표 3.27> 시각장애학생의 하위어 이해력 비교

변인	구분	N	M	SD	t	p
시각장애 정도	맹	50	4.76	2.30	-.007	.994
	저시력	70	4.76	2.08		
거주형태	자택	53	4.98	2.29	1.002	.318
	기숙사	67	4.58	2.06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60	4.60	2.23	-.800	.425
	후천성	60	4.92	2.11		

표 3.27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인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의 하위어 이해력은, 먼저 맹학생의 평균은 4.76, 저시력 학생의 평균도 4.7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맹학생의 이해 정도와 저시력 학생의 이해 정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하위어 이해력은, 자택 학생은 평균 4.98, 기숙사 학생은 평균 4.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택학생의 이해 정도가 기숙사 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발생시기인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른 하위어 이해력은,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선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4.60, 후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4.92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후천적인 학생의 이해 정도가 선천적인 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 (4) 유의어 이해력 비교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유의어 이해력 비교는 표 3.28과 같다.

표 3.28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인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의 유의어 이해력은, 맹학

생의 평균은 4.46, 저시력 학생의 평균도 4.5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시력 학생의 이해 정도가 맹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어 이해력은, 자택 학생은 평균 4.66, 기숙사 학생은 평균 4.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택 학생의 이해 정도가 기숙사 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발생시기인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른 유의어 이해력은,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선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4.28, 후천성인 학생의 평균은 4.73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각장애 발생시기가 후천적인 학생의 이해 정도가 선천적인 학생의 이해 정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28> 시각장애 학생의 유의어 이해력 비교

변인	구분	N	M	SD	t	p
시각장애 정도	맹	50	4.46	1.73	.261	.794
	저시력	70	4.54	1.70		
거주형태	자택	53	4.66	1.82	.868	.387
	기숙사	67	4.39	1.61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60	4.28	1.66	-1.452	.149
	후천성	60	4.73	1.74		

(5) 전체 어휘력 비교

시각장애학생의 전체 국어 어휘력을 종합하여 시각장애 정도, 거주형태, 시각장애 발생시기에 따른 이해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3.29와 같다.

<표 3.29> 시각장애 학생 전체 어휘력의 비교

변인	구분	N	M	SD	t	p
시각장애 정도	맹	50	19.46	6.88	1.241	.218
	저시력	70	20.87	4.92		
거주형태	자택	53	21.15	5.60	1.456	.148
	기숙사	67	19.60	5.97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60	19.28	6.31	-1.898	.060
	후천성	60	21.28	5.18		

표 3.29에 의하면,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맹학생은 평균 19.46, 저시력 학생은 평균 20.87이었으며,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자택 학생은 평균 21.15, 기숙사 학생은 평균 19.60이었으며, 시각장애 발생시기에 따라서는 선천성인 학생은 평균 19.28, 후천성인 학생은 평균 21.28로 나타났다.

저시력인 경우거나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후천성인 경우 다소 어휘력이 다소 높았으나 시각장애학생에서는 시각장애 정도, 거주형태, 시각장애 발생시기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차이는 김선경(2001)의 시각장애아동과 정안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양육 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저시력 학생이 맹학생보다 더 자율적인 가정환경, 학교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휘의 습득과 이해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소극성을 띤 타율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성을 띤 자율적인 태도가 더 많은 어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시력 학생은 점자를 통하여 어휘를 습득하기도 하지만, 광학 기구나 비광학 기구를 통해서도 어휘를 습득할 수 있어 맹학생보다는 어휘를 습득하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겠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더 자율적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자기존중감, 사회적자기존중감, 가정적자기존중감은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더 높았다. 이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성취동기나 목표의 계획 및 달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신종순, 1990), Strate와 Hash(1979)에 의하면 학년 구분 없이 학업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어휘의 습득이나 이해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7세 이후에 시각장애를 당한 학생이 그 이전에 시각장애를 당한 학생보다 더 타율적이고, 자기존중감에서도 부분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어서 국어 어휘력의 평가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많은 어휘 습득한 이후여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기 전까지 선천성 학생보다 후천성 학생이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하여 배경지식으로 축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 중·고등학생의 국어 어휘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시각장애학생의 국어 어휘 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소재한 시각장애 중·고등학생과 서부 경남에 소재한 정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간의 국어 어휘력에 대한 요인별 이해력, 요인별 정답률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변인에 따른 어휘력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요인별 국어 어휘력의 비교에서는 정안학생들이 시각장애학생보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어휘력이 높았으나, 전체적인 비교에서 정안 중학생과 시각장애 고등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도시 학생의 어휘력이 농촌 학생보다는 대체로 높았으나, 전체적인 비교에서 농촌 정안학생과 도시 시각장애 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의 어휘력의 요인별 정답률 비교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정안학생이 시각장애학생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하위어 ‘시대에 따른 소설’ 문항과, 유의어 ‘춘부장’과 ‘셋별’ 문항의 정답률은 시각장애학생의 정답률이 약간 높았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변인별 어휘력 비교에서는 맹학생 보다는 저시력 학생이, 기숙사보다는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선천정보다는 후천성 학생의 어휘력이 다소 높았으나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참고문헌

- 강명희(2001). 의미범주화를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경(2001). 시각장애아동과 정안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은희, 임안수, 이해균(1997). 반복 읽기가 특수학교 저시력 아동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도서출판 재활공학.
- 김현애(2004). 시각장애아 독서지도 방법과 실제. 독서치료 연구실.
- 노대섭(2001). 중학생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특별시교육청(2003).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심영자(1984). 아동의 어휘력 확장 연구. 서울대학교학원 석사 논문.
- 신중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기존중감과 관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해균(2006).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성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7권 1호, 388-408.
- 차항미(2002). 시각장애 학생과 정안 학생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사용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명숙(2004).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어휘능력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trate, M., & Hash, V.(1979). *The Effect of an Alternative School in Adolescent Self-Esteem. Adolescence*, 14, 185.
- Zweibelson & Barg(1967). Concept development of blind children. *New Outlook for the Blind*, 61, 218-222.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Vocabulary Abilities of Student with Visual Impaired Students to those of Normal Students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Kim, Ok Hyeon**

Saengcho High Scho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into comparing the comprehension of Korean vocabulary elements composed of absolute synonyms, antonyms, hyponyms and partial synonyms of the visually impaired with that of normal students, and the difference of the vocabulary ability according to the variable elements of the visually impaired so as to use this research in teaching the visually impaired the Korean vocabularies.

The concrete methods to achieve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I will find out the comprehension difference of Korean vocabularies and the normal students. Second, I will find out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o Korean vocabularies between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normal students. Third, I will find out the difference of vocabulary ability according to the level of visual handicap, the type of residence and the time of visual handicap.

I make up a question to 120 visually impaired students all around the country and 19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western Gyeong Sang Nam Do.

The research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a month from May 10th, 2006 to June 10th, 2006. I called the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normal school beforehand, got a permission to make a research and then post research papers to them. The question paper was translated into Braille to the blind and enlarged into 20 point to the students having a bad eyesight. The 150 copies of research paper was sent to the visually impaired and 200 copies of them to the general schools. The 120 copies of them was brought back from the visually students and 191 copies of them from the normal students.

The research paper were analyzed with SPSS 10.0 for windows. The dual variable analysis is used for the comparison of vocabulary ability between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normal students. The frequency analysis is used for the comparison of correct answers in each element of vocabulary ability. And The independent T analysis is used for the comparison of vocabulary abil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ly impaired.

The conclusion based on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vocabulary ability of normal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And the vocabulary ability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high school is higher than that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middle school. Bu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high school.

Second,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normal student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But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s of hyponyms of 'novels according to an era', partial synonyms of 'other people's father' and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Venus' better than the normal students.

Third, the vocabulary ability of students having bad eyesight, living in their own house and having acquired visual disability is higher than the blind, the students living in the dormitory and having inborn visual disability. And the vocabulary ability of urban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rural students. Bu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vocabulary of the normal students in the country and that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the city.

**key words** : Vocabulary Abilities, visual impairment